

스위스 旅行記

회 장 田 山 草

<이학박사, 연세간호대학장>

- 이번 스위스여행은 두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물론 초청받은 “세계복음화 ○
-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Geneva에 있는 ICN(국제간호연맹)본부에 한 ○
- 국제간호회장으로서는 一次 방문하려는 중요한 목적이었다. ○
- 지난번 Mexico 대회에 참석은 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총회이고 일단 본부를 방문 ○
- 헤보야야 국제간호연맹기구와 그 성격을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 나의 이와같은 예상은 두 목적이 다 유익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
- 끝으로 아름다운 Swiss 의 Alpes 와 호수가를 거닐어 보고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
- 7월 13일 김포공항을 떠나 동경에서 하루 묵고 홍콩, 필리핀, 봄베이등을 거쳐 Swiss ○ .
- Geneva 공항까지 24시간의 긴 여행이었다. ○

I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참관기

이번 회의는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이었으며 이번 대회의 주제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었다.

회의는 7월 16~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고 장소는 Geneva에서 약 40분 기차로 가면 호수와 산이 아름다운 Lausanne 이라는 곳이었다.

회의 장소 “Palais de Beaulieu”는 4,000여명의 회원이 회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국제회의의 모든 시설을 갖춘 좋은 장소였다.

150여개 국가에서 2,700명의 정식대표들이 참

석했고 약 800명의 방청자(대표들의 부인포함)를 합하면 3,700명이었다.

이번 대회의 명예회장은 Billy Graham 이었다.

10日間の 대체적인 Schedul은 예배, 기도, 성서연구(사도행전), 복음과 전도에 관한 신학강좌, 집단토의는, 1. 전도방법 2. 특수전도의 연구등이었다.

이 대회에서 모든 회원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엄숙한 언약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했다.

- 1) 이 대회는 진실로 역사적인 회합이었고
- 2) 제3국 특히 한국의 복음화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 3) 목적을 위하여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4) 자신의 참회와 더불어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로서

5) 그리스도인된 무리의 사명인 세계복음화운동에 헌신할 것을 자자 받아들였다.

II I. C. N. (국제간호연맹) 방문기

금년 75회의 생일을 맞는 ICN본부는 모든 사회복지 및 보건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Swiss Geneva市에 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ICN 연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가 개최되는 교장에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 있었으나 Geneva의 본부를 방문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휴가로 미국 자기집에 갔던 총무가 돌아왔다고 하며 노란기를 든 직원이 Geneva역까지 나오겠다는 장거리 전화를 받고 Lausanne에서 기차를 탔다.

Lausanne에서 Geneva까지湖畔을 달리는 기차속에서 내다보이는 농촌과 호수와 산의 경치는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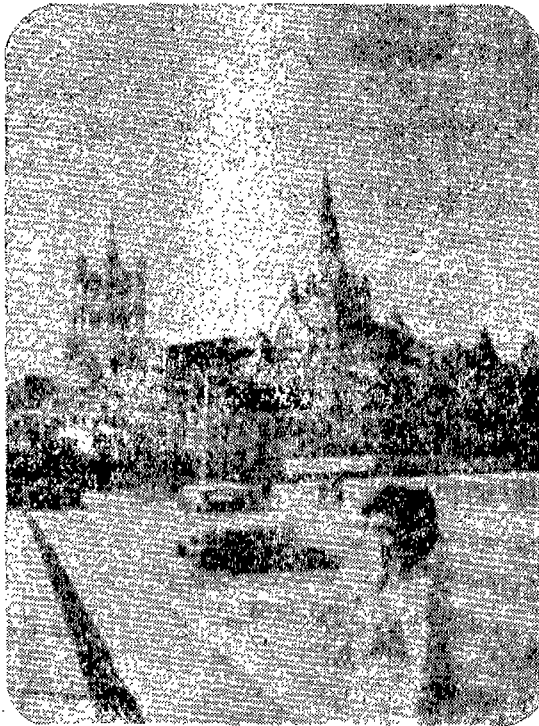
회관은 Geneva市내의 큰 빌딩의 한층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으며 입구의 큰 라운지에는 세계각국간호협회에서 기증한 그나라 특유의 예술품들로 장식되었으며 이사회의회의실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각부서별 사무실이 있었다.

ICN 총무의 오찬회에 참석하였으며 끝난후 회관에 돌아와 총무와 ICN장지(간호원과 간호) 편집부장 그리고 제1간호전문직고문과 논의했다.

먼저 내가 질문하기를 “最近의 ICN의 새로운 방향과 문제점이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1973년 이번 Mexico 대회에서 새로 채택되어 선포된 ICN의 새 간호원의 윤리강령과 “간호원의 역할의 확장에 대한 성명서”가 곧 새 방향이나 이 윤리강령의 조속한 보급이 중요사업중에 하나라고 한다.

우리도 이미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해서 本誌에 게재했으며 또한 간호원의 날에 선포한 바 있다.

당면문제로는 첫째, 제2종면허 소지자 Practical



아름다운 나라 Swiss Lausanne에서의 田山亭회장

Nurse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된다면서 “당신의 나라는 단일면허제도니까 문제가 없겠군요”하면서 참 잘된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간호보조원 문제가 역시 같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둘째, 국제간의 Exchange Program의 기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보고자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Program이 왜 中斷되었나 하는데 대하여 피차에 토의하였다.

셋째로는, 내년 C.N.R (Council of National Representatives) 대표자회의의 토의안건에 대하여도 논의하다.

넷째로는, 국제간호학생회를 ICN정석 Member로 두는 문제등이 당면한 연구과제라고 한다.

한국간호협회의 당면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들과 논의했다.

1. 간호원의 행정참여문제<병원보건사업정착에서 결정되>
2. 사회 변천에 따른 간호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변화의 계획문제

3.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준비로서 인력증당, 지식.
4. 간호철학 및 윤리의 제 강조
5. 전문직업으로서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人的 자원의 지속적인 교육문제
6. 해외과견간호원의 문제
 - 1) 외국에 나가 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 2) 정서적 심리적 문제
 - 3) 재교육 문제와 개인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문제 등

이상의 문제를 간호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했다.

같은 立場에 처한 전문직업인의 지도자로서 흥감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때 그들은 한국의 간호사업을 이해하였으며 그 교육적 사업적 위치를 재인식했으며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장차 꼭 이사국이 되어야겠다는 말을 여러번 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1. 한국에 간호사업의 수준은 여러면에서 미국을 따르는 정도에 놓여있다고
2. ICN의 문제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간호 및 보건문제와 관련된 세계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 근본적이며
3. 이번에 Exchange Program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간호원을 받아들여 교육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은 지녔으나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4. 한국의 간호사업은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계적 전문적 간호사업 발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5. 간호사업도 미래의 세계에 있어 제일 컸게 가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졌다.

사업가적인 활달하고 능숙한 종무와 지성적이고 순수한 제 1 간호전문직교문과 불란서어를 주로하는 젊고 지성미를 지닌 매력있는 女性인 상냥한 전집부장과 시간가는줄 모르는 대화는 그들도 나도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고 작별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참 보람있고 의의 있으면서도 마음껏 서로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ICN에 한국의 간호사업의 일을 심고 더욱 더 깊은 든든한 우의를 맺고 돌아왔다.

이제 ICN은 과연 우리 세계 女性의 또한 전문적 간호학의 중앙단체임을 실감하면서 돌아서는 한국의 간호협회회장에게는 알아볼 것과 할 것을 다 한 것 같은 후련함과, 가득차게 귀한 것을 갖고 돌아오는 보람있고 가치있는 방문이었다.

III

스위스 관광기

—Swiss의 山水와 人心—

한마더로 그림보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까 나로 하여금 호수가 서면 旅愁와 浪擲에 젖게 하고 감격하게 해주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치의 정경이었다.

산이 있는 곳에 호수는 따르는 것인양 많은 自然의 호수가 아름다운 산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호수가의 산도 아름다우려니와 자연속의 농가나 寺院 또는 건축들은 너무나 수려하게 보였다.

먼 산 Alps 산줄기의 아름다운 산들은 대개 해발 2,3천 높이기엔 山頂에는 사철 눈이 있고 가까운산 내가 서있는 산에는 푸른잔디의 농장과 우거진 山林, 꽃으로 장식한 통나무집, 큰 방울을 단 목축의 소의 무리들 모두가 다 국가공원을 아름답게 하기위해 계획하여 배치한듯 질서와 미를 추구하여 배치되어 있었다. 먼지는 하나도 없어 서울서 하루만 입어도 까맣게 더럽든 나의 하얀 「쑈」이 10일을 입어도 더럽지 않았다

人心은 무표정하며 원칙대로 사는것은 너무나 타당하고 자연스러웠다. 아침이나 지나친 비둘, 지나친 영업적 봉사활동 등은 이 나라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인 것으로 느껴졌다.

인간관계, 교통, 행정, 회의, 안내, 봉사활동 모든 일들이 원칙에 따라 마치 쫓시계와 같이 일초도 어김없이 돌아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中立國이었다.

나의 일생중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서 나에게 십여년 낭만의 정경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